

구동에서



김종민 논설실장

2023년 7월 통합지방자치단체 출범을 목표로 대구시와 경북도가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른바 '대구경북특별자치도' 법적 지위는 서울특별시와 준한다. 정부는 국가 사무와 재정 이양 등 전폭적으로 지원한다.

경남도와 부산시도 새로운 통합지방정부를 신설하거나, 최상위 기구인 준주(準州)를 두는 내용의 기본 구상안을 공개하고 공론화 위원회를 가동 중이다. 내년에는 정부 차원에서 실행을 위한 본격 준비에 착수한다. 대전시, 세종시, 충남도, 충북도 등 4개 시도 행정통합보다 느슨한 형태의 '충청광역연합'을 이르면 2025년 1월 발족한다. 이미 각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조례와 규칙, 자치법규 제정안을 마련했다.

그렇다면 광주시와 전남도의 사정은 어떤가. 초광역화 흐름 속에 행정통합 관련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는 요구가 높지만 상생과 소통을 통해 지역발전을 견인할 구상제마저 유명무실하다. 주요 현안에 대해 머리를 맞대 갈등과 비효율을 견어내고 실질 성과를 도출해야 하는 막중한 시기에 실상은 '따로 국밥'이다.

왜일까. 상생협의회가 핵심 의제인 광주 공공항 이전에 가로막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무안국제공항을 서남권의 중심으로 육성해 호남 발전을 견인하고, 광주공

행정통합, 허송세월 안하려면

항 부지를 혁신 거점으로 만드는 사업인데도 10년이 되도록 표류 중이다. 광주시와 전남도, 무안군 3자 간 입장이 엇나고 형편없어 솔로몬의 지혜라도 구해야 할 상황이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전북특별자치도와 7년 만에 정책협의회를 갖고 호남권 메가시티의 첫발을 내디뎠다. 그것도 초광역 교통망을 확충하고 산업 협력 벨트를 구축하는 등 경제동맹을 내실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행정 통합으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 역할을 하기 위해서라고 배경을 들었으나 늦은 감이 있다.

지난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광주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이 이슈였다. 대구·경북 등과 달리 협의가 단절된 것 같으며 구체 계획을 추궁한 것이다. 이에 강기정 시장은 "선 기능 통합 후 행정통합 원칙에 공감하고 광역철도, 에너지 정책 등을 먼저 함께해나가고 있다"고 해명했다.

전남도는 특별자치도 연내 입법에 역량을 결집하고 있다. 도민 공청회, 국회 세미나 등으로 여론을 확산하고 있다. 지방소멸 최대 위기 지역인 만큼 에너지·관광·농어업·첨단산업 등에 대한 정부 권한을 대폭 이양받아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실질적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는 당위성을 내세운다.

시민들은 우리만 뒤처지지 않을까 마음이 급하다. 지자체 제 역할 못하면 그 피해가 주민들에게 넘어온다. 걱정이 많다. 광주시는 경제공동체에, 전남도는 특별자치도에 공들이고 있다. 전북과 함께 호남권 연합도 거론되지만 했을 뿐 이제 막 시작이다.

함흥차사다. 2020년 11월 민선7기 이용섭 시장과 김영록 지사는 "두 지역 정치, 경제, 문화적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촉

진하기 위해 행정통합 논의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한다"며 합의문에 서명했다. 용역 1년, 검토 6개월을 거친 뒤 공론화위를 구성하는 로드맵과 함께 시정과 도정은 기능을 유지하도록 노력하기로 하는 내용이 담겼지만 진전이 없다.

국감에서 신정훈 행안위원장도 "광주전남 연구원이 연구 용역을 하며 행정통합에 대해 유보적 결론을 내렸고 결국 기관도 분리됐다. 이게 현주소다"고 꼬집었다.

지방행정체제는 1985년 민선 지방자치 시작 이후 30년이 되면서 인구 감소 지방 소멸, 행정 구역 생활권 불일치 등 급격한 환경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초광역권이 국토 균형과 지역 발전의 새로운 접근 전략인 것이다. 전문가들도 500만명 정도가 돼야 자생력이 있다고 본다.

2024년도 한달 여 남았다. 이대로 올해도 넘어갈 것이다. 그야말로 허송세월 아닌가. 내년이면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 이상인 초고령사회로 접어들다. 출생아는 급격히 줄고 있다. 광주·전남은 인구 규모가 비슷한 다른 광역시·도와 견줘봐도 감소세가 뚜렷하다. 향후 10년, 20년 뒤 다칠 '혹독한 겨울'을 제때 대비하지 않으려다.

2026년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 2027년 3월 대통령 선거, 2028년 4월 국회의원 총선거 등의 굵직한 정치 일정이 이어진다. 지금이 바로 골든타임이다. 결단해야 한다.

행정통합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생존의 길이다. 더구나 광주·전남은 역사적으로도 한 뿌리 생활공동체다. 해서 진정 의지가 있다면 시민들에게 답해야 한다. 강 시장과 김 지사가 진짜 미래 비전을 분명하게 제시해야 할 것이다.

社說

데이터센터 예산 절감 전남도 투자유치 의지 있는가

전남도가 2025년까지 데이터센터 100기를 유치할 계획이지만 예산도, 정책도 뒷받침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데이터센터는 40MW급 1기 구축에 5천억원 안팎이 투자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150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다. 특히 취·등록세와 지방소득세 등 건전한 재정 효과에 특목히 기여하는 효과 시설이다.

전력 다소비 시설인 데이터센터는 수도권에 선 계통포화 해소와 함께 해상풍력, 태양광 사업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이에 전남도는 해남 25기, 광양·순천 30기, 영암 20기, 함평 20기, 장성 5기를 목표로 정한 바 있다. 그런데 도의회에 제출한 내년 투자유치 활동 예산은 책자 제작 500만원, 업무추진비 500만원 등 총 1천500만원에 불과했다. 이마저도 올해에 없던 여비가 늘어난 수 있다. 도의회 예산안 심사에서 차별화된 전략이나 실질적인 지원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전남도는 지난해 11월 한국전력과 공동으로

수도권 투자 설명회를 열었다. 내로라하는 데이터센터 기업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으며,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그린데이터센터 건립에 최적의 입지 조건을 갖춘 전남에 큰 관심을 나타냈다. 해남 기업도시의 '솔라시도 데이터센터파크 조성'과 정부 데이터센터 수도권 완화 정책에 따른 지역 유치 1호인 '장성 카오엔터프라이즈 데이터센터' 추진 상황은 우수 사례로 소개돼 호응을 얻었다.

1기 당 최대 1조원까지 투입되는 대형 프로젝트 유치 전략이 지나치게 허술하다. 홍보 책자 하나 들고 글로벌 기업들을 상대한다는 지극히 안일한 생각 아닌가. 데이터센터와 연관된 전·후방기업도 포함해 소자·부품산업까지 육성하는 등 생태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하지만 지금대로면 민발모 그칠 가능성이 높다. 국내의 대기업 유치를 위해서는 기술 개발, 국비 확보, 심포지엄 개최 등 다양한 형태의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는 도의회의 요구를 귀담아 들어야 할 것이다.

5·18 성지 옛 도청 복원 시민 공감대가 중요하다

5·18민주화운동 최후 항쟁지이자 시민군의 심장부였던 옛 전남도청 복원 사업의 청사진이 공개됐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추진단은 기자 간담회를 통해 도청 본관의 경우 외관 창조를 비롯한 출입구와 건물 사이를 이어주는 연결 통로를 재구축해 1980년 당시 모습으로 되살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사진 자료 등을 바탕으로 마감재·바닥재·벽지까지 최대한 원형 복원하는 중이다.

내부 콘텐츠는 항쟁 열흘 간의 서사를 담기 위해 노력했다. 스크린을 통한 전시와 도청 본관 서투고 외벽에 담긴 탄흔, 탄두 등에 대해 QR코드를 활용, 스마트폰을 이용해 AR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본관 시민군 상황실은 당시 사용했던 총기류와 필기문도 전시한다. 이 밖에 경찰청 본관 1층에서는 12·12 군사반란부 터 5·18에 이르는 서사를 홀로그램 입체 영상으로 선보이기로 해 기대를 모은다. 특히 추진단이 주목하는 것처럼 최근 노벨문학상을 받은 한강 작가의 대표작인 '소년이 온다'의 주 무대인 만

람 작품을 연계한 공간도 필요해 보인다. 소설 속 주인공 동호는 당시 고등학교 1학년으로 옛 도청을 지키다 산화한 고(故) 문재학 열사를 모티브로 하고 있다. 퇴직 기자들의 '언론검열관실' 복원 요청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위치를 특정할 자료가 없다고 하지만 자료 수집 후 검토를 거쳐 꼭 마련돼야 하겠다.

2025년 10월 말 완공을 목표로 전체 건설 공정률은 34%, 전시 콘텐츠 구현 공정률은 10%에 이르는 상황이다. 추진단은 사업 전반의 윤곽을 제시한 지난 2월 착수보고회, 내부를 꾸밀 콘텐츠를 공개한 9월 시민 설명회 이후 언론사 대상 소통회의를 개최, 추가되거나 수정된 세부 전시안을 발표했다. 1980년 5월 모습 그대로 '원형 복원' 대원칙은 지켜져야 한다. 광주시, 5·18재단, 시민사회와 수시로 협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수시 보완하는 등 만전을 기해야 한다. 준공에 이르기까지 콘텐츠를 구체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민주주의 역사의 상징이다. 한 치의 허점이라도 있어선 안 된다.

김영순의 '문화터치'



광주문화재단 전문위원

광주는 지금, 미래를 묻고 답할 때다

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속출했다. 광주연구원 최치국 원장은 기초발제에서 광주는 이제 민주도시에서 '포용도시'로 진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광주가 제2의 성장을 위해서는 직면해 있는 저출생·청년유출·기후위기·불평등·사회분열의 복합적 위기를 극복할 새로운 발전 모델이 필요하다"면서 시민·전문가·정책결정자 등이 참여하는 포용도시 포럼을 운영해 문제를 공유하고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더해 '글로벌 포용도시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문화광주 조성 방안으로는 광주 축제의 문제점을 진단한 데 이어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축제의 선택과 집중, 축제의 5·10월 분류 통합 운영 등이 거론됐다.

이날 포럼은 급변하는 시대적 전환 속에서 광주시의 도시 공간구조 변화에 대한 시대적 요청을 체득하는 자리였다. 도시 재창조와 도시 재구조화를 통해 '공간+산업+사람'의 융복합적 도시재생이 이뤄져야 하고 문화에 숭중심의 융복합공간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발제자는 일본 도쿄역 마루노우치 지구, 런던 킹스크로스 등을 재구조화의 도시재생 사례로 들면서 이들 지역의 성공전략이 복합 용도, 대중교통중심개발, 보행친화, 스마트 시티 등이었음을 밝혔다. 또 미래도시주거의 정책방향으로는 '광주형 공공주택' 공급을 제시하며 이를 통한 새로운 도시 이미지 구

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인류가 처음 맞는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광주가 어떻게 해야 희망찬 미래를 도모할 수 있는가. 그에 대한 방향성이 포럼에서 잡혔다. 그러나 뭔가를 하기 위해선 예산 확보가 관건이다. 돈이 없으면 도시의 어떤 의사결정도 무의미해진다. 또 시민의 주도적 참여도 추진동력이 된다. 무엇보다도 포럼에서 제시된 문제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데 의견이 없었다. 우리가 미래를 묻고 답하며 실행해야 한다는 것이 이날 토론의 핵심이었다. 더욱이 실행력에 무게중심을 뒤야 한다는 게 이구동성이었다. 이기훈 광주시 시민사회지원센터장은 "20년 전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이라는 국책사업을 추진했지만 당시의 장밋빛 청사진이 현재 무색하게 되었다"며 중요한 것은 실천력이라고 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결정적 순간에 광주는 늘 대단한 힘을 발휘해 국가의 길에 나섰으며 광주의 그 힘은 '집중력'에서 나온다고 제한된 뒤 "미래의 그림을 그리기 위해 그 집중력을 보여야 할 때"라고 광주의 미래 만들기에 대한 해법을 제시했다. 더불어 문화, AI, 민주주의 등의 산업 구축으로 호남의 미래 발전을 도모할 것을 약속했다. 미래를 묻고 답한 뒤 우리 모두가 응집력 있게 실행력의 고삐를 늦추지 않는다면 광주는 대전환기의 위기를 쉽게 돌파할 수 있을 것이다. 내일, 광주는 찬란한 태양을 맞이할 것이 확실하다.

우리의 미래는 불확실하다. 장밋빛인지, 회색빛인지 알 수가 없다. 분명한 것은 오늘 우리 하기 나름에 따라 내일이 정해진다는 것이다. 더욱이 현재 우리가 처한 상황은 매우 벅하다. 제4차 산업혁명과 기후위기로 인한 파고가 거세기 때문이다. 인류문명의 대전환기라 할 수 있다. 해서, 그에 대한 해법도 했던대로가 아니라 특별한 조처여야 한다는 거다. 거기다가 저출산으로 인한 지역소멸론까지 겹쳐 우리를 사정없이 옥죄고 있다. 이에 광주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고. 그에 대한 답을 모색하는 자리가 있었다. '광주의 미래를 묻다_광주의 지도가 바뀐다'는 주제로 지난 20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연 정책 포럼이 그것이다. 자칫 암담해질 수 있는 상황에서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찾는 모습이 너무나 반가웠다.

포럼에선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의 시대에 맞는 광주의 미래를 그리기 위해서는 5·18 광주정신을 바탕으로 저출생·고령화·청년유출·기후위기·불평등·사회분열의 복합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발전모델과 실천동력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 위해 서행 안전 운전을 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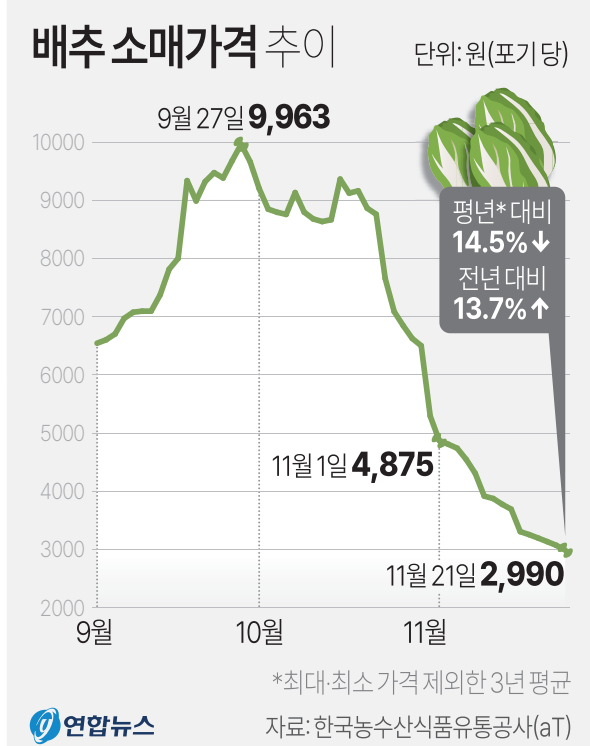
가 급증하는 시기로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 더욱더 주의해야 할 시기이다. 농촌의 경우 보행자사고는 도시권과 다르게 보행자가 동행할 수 있는 보행로가 잘 갖춰지지 않은 일반국도나 지방도, 군도에서 일어난 사고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처럼 가드레일이 없는 국도나 지방도·군도 등 도로변 보행이 쉽게 이뤄질 수 있는 농촌지역에서는 노인들의 보행 빈도가 잦아 사고가 더 자주 발생하고 있다.

또한, 농촌지역에서 노인분들의 일자리 창출 목적으로 도로상에서의 공공근로가 잦은

만큼 차량 운행 시 더욱더 안전 운행에 주의가 요구된다. 경찰에서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과속, 신호위반, 난폭운전 등 위반차량에 대해 지속해서 단속해야 하고, 보행자들은 갈수록 해가 짧아지는 동절기인 만큼 보행 시에는 운전자들의 눈에 될 수 있게 항상 밝은색 계통의 옷차림으로 보행을 하여야 한다. 또한 운전자들은 농촌지역 지방도 등을 통행할 시에는 항상 노인 등 보행자들이 도로변을 걸어 다닌다는 생각으로 서행하면서 안전 운전 했으면 한다. <곽태대·고흥경찰서 정임파출소장>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픽 뉴스: 김장철 배춧값 안정세... 10개월 만에 한포기 2천원대로. 가물배추 출하에 따라 배춧값이 점차 하락하면서 21일 포기당 소매가격이 3천원 아래로 떨어졌다. 이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배추 소매가격은 포기당 2천990원으로 내렸다. 배춧값이 2천원대로 떨어진 것은 올해 1월 중순 이후 10개월 만이다. 올해 8-9월 폭염이 길게 이어지면서 여름 배추 생육이 부진했고, 일부 생산지에서는 가물까지 겹치며 배추 소매가격은 지난 9월 27일 9천963원까지 치솟았다. 그러나 가물배추 출하가 본격화하자 배춧값이 지난 1일 4천원대로 떨어졌다. 이에 더해 정부의 할인 지원과 유통사별 할인이 더해지면서 배춧값은 지난 11월 3천원대로 내렸고 이날 2천원대가 됐다. 이날 가격은 2019년부터 작년까지 가격 중 최대·최소를 제외한 3년 평균인 평년과 비교하면 14.5% 낮은 수준이다. 다만 1년 전과 비교하면 13.7% 높다. 배추와 마늘, 고춧가루, 잣가루 등 대부분 재료가 평년 수준으로 안정됐다. 다만 김장철 무가격은 아직 강세다. 이날 무 1개 소매 가격은 2천630원으로, 1년 전보다 86.0% 비싸고 평년보다 29.8% 높다. /연합뉴스



독자투고



이상기운 등 지구 온난화로 인해 온 산을 행형색으로 붉게 물들던 단풍이 늦은 가을철을 맞아 많은 차량이 이동하면서 교통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해 보행자 교통사고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2023년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전체 교통 사망자 2천551명 가운데 보행자 사망자는 886명으로 최근 10년간 전체 사망자 수의 약 38%를 차지하고 있어 운전자들의 보행자사고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해가 짧아지는 동절기로 접어들면 보행자사고

광주매일신문 1991년 11월 1일 창간 http://www.kjdaily.com. 회장 馬亨列 사장·발행·편집인 李庚秀 논설실장 金鍾民 편집국장 朴恩成. (우)16163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로338번길 16 대표전화 (062)650-2000 구독신청·배달안내 (062)650-2022. 편집국: 편집부 650-2090, 정치부 650-2030, 경제부 650-2050, 사회부 650-2040, 문체부 650-2065, 지역특집부 650-2060, 사진실 650-2080, 논설실 650-2006, TV본부 650-2009, 서울지사(02) 786-9488. 광고문의: 650-2099, 마케팅본부 650-2070, 경영지원국 650-2011, 사업본부 650-2007, 업무국 650-2020. FAX: 광고국 650-2016, 편집국 650-2017, 업무국 650-2019.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고시요건을 준수합니다. *2002년 4월 30일 등록, 등록번호 광주가10(日제)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0원